

#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공학 및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 도모



회장 張 根 秀  
(포항공대 교수/화학공학)

1945년 해방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는 특기할 만한 산업시설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및 한국에서 활동하던 기술자들과 교수 및 재학생 등에 의하여 설치되기 시작한 각 대학의 화학공학과에서는 젊은 화학공학도들이 배출되었고 특히 전쟁 전후에 북쪽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월남하여 과학기술 인력이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산업계에서는 59년 충주비료공장이 준공되고 기타의 대규모 화학공장들이 속속 준공 가동되면서 실제현장에서의 화학공학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고조되었고 화공인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60년 4·19학생의거의 여파로 고조된 개혁의 분위기하에서 그동안 대한화학회에서 활동해오던 화공인들 사이에 독자적인 화학공학회를 발족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62년 7월14일 울산비료 사무실에서 화학공학회 발전을 위한 첫 모임이 있는 후 동년 8월18일 서울공대 화공과에서 학회 창립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선임된 위원들의 준비로 동년 12월8일 한국화학공학회 창립총회가 열려 초대회장에 박종면씨가 선임되었다.

창립총회를 성공리에 끝맺은 후 첫 사

업으로 63년 6월1일 제1차 연차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서울대 문리대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때 학회지 「화학공학」의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이후 「화학공업과 기술(1983)」,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1984)」 등이 속속 창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회관은 최근선회장(22대)의 노력으로 럭키금성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91년 10월7일, 구의동 현건물로 입주하였다.

〈목적 및 사업〉 76년 사단법인체로 전환한 한국화학공학회는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며 화학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3종의 학회지 및 기타 도서를 간행하며 연구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 황〉 창립 당시 2백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화학공회는 93년말 현재 3천 2백10명의 회원을 갖는 국내 최대 학회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90년부터는 회원 직선으로 구성된 평의위원회와 여기서 뽑힌 회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94년도에는 장근수회장의 제25대집행부 임원들이 학회운명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화학공학회 산하에는 9개의 지부 및 분회와 7개의 업무위원회 및 13개의 부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각 부문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부문위원회 소식지를 발간하며 국제학술교류행사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학술활동〉 회원의 학술교류를 위하여 매년 2회의 정기연구발표회를 봄에는 서울에서 가을에는 지방에서 행해오고 있으며 각 부문위원회별로 별도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연구논문 발표를 위하여 국문지 「화학공학」, 영문지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및 기술지 「화학공업과 기술」을 발행하고 있다.

63년 6월1일 창간호를 발간한 「화학공학」은 매년 2회씩 발간해오다 66년부터는 연4회, 72년부터는 연6회씩 발간되고 있다. 83년 3월 창간호를 발간한 학회기술지 「화학공업과 기술」은 연4회 발행하였으나 90년부터 연6회로 증편 발행되고 있으며 84년 3월에 창간호를 발행한 학회 영문지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은 연2회 발행으로 시작하였으나 89년부터는 연4회로 증편 발행되고 있다. 특히 영문지는 양적인 팽창은 물론 질적으로도 향상되어 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 에서 발행하는 「Current Contents」와 「Science Citation Index」에 인용되는 정도의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국제학술교류〉 학회 창립부터 국제기 술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한 본 학회는 63 년 11월 유타대학의 Henry Erying 교 수 초청강연회를 시발로 미국, 일본 등 지의 유명학자들을 초청하여 수시로 강 연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본 학회 창립 1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동경에서 열 린 PACHEC I 과 연계하여 로얄호텔에 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각 부문위원회 주관으로 치뤄지 는 정례 국제학술교류는 아래와 같다.

○한·일 분체공학 공동세미나(85년부터 매2년마다) ○한·미, 한·러, 한·일, 한·중 촉매심포지엄(87년부터) ○한·일 분리기술 심포지엄(87년부터 매3년마 다) ○아시아유동층 삼상반응기 학술회 의(88년부터 매2년마다) ○아시아·태평 양 생물화공회의(90년부터 매2년마다)

그리고 94년 5월에 PSE94(The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cess Systems Engineering) 국제 회의의 화학공학회 후원으로 개최할 예

전시회기간 동안에는 국제기술심포지엄 을 동시에 개최하여 8개분야에서 전문가 를 초빙, 다양한 기술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SICHEM 전시회는 미국의 Petrochem, 독일의ACHEMA 및 일본의 INCHEM TOKYO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단위 국제전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INCHEM TOKYO와는 매년 번갈아 2년마다 한번 씩 개최하기로 하였다.

〈하계심포지엄〉 본 학회에서는 매년 여름 교육위원회 및 산학협동위원회의 주관으로 하계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 다. 하계심포지엄의 시초는 교육위원회 에서 주관하여 69년 7월 해인사에서 2 박3일간 열렸던 하계교육심포지엄이며 그후 매년 장소를 바꾸어가며 개최되어 오다 근년에는 산학협동위원회와 공동 으로 주관하고 내용도 화학공학 교육에 서 화학공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바뀌어갔다.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 본 학회에서 는 현재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학사업과 학력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흥규 전회 장(24대)의 노력으로 대림산업이 출연한 3억원의 기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이 32 개교 36명에게 매학기 등록금으로 지급 되고 있으며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화학공학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 여 입상자들을 학회총회시에 표창하고 있다. 현재 개최되는 부문은 이동현상부 문이며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화학공학회 사무국의 위치는 〈서울 성동구 구의동 547-8, 리젠트오피스 텔 307호, TEL(02)458-3078, FAX (02)458-3077〉이며 화학공학회에 연락 사항이 있으시면 김형욱사무국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람.



◇ 지난해 10월 21일 추계총회에 앞서 청주관광호텔에서 열린 지방장학회의를 끝내고.

이를 계기로 국제화가 가속되어 각종 국제학술대회에의 참가와 외국학자들의 방한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 으로 한국화학공학회의 활동 상황이 알려 지게 되자 PACHECⅢ를 서울에서 개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본 학회는 신중 한 검토끝에 학회창립 20주년기념사업 의 하나로 PACHECⅢ를 83년 5월8일부터 11일까지 외국참가자 3백51명, 한국 참가자 7백16명, 총 발표논문 2백63편 이라는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루어낸 바 있다.

정이다.

〈SICHEM (Seoul International Chemical Plant Exhibition) 개최〉 본 학회에서는 선진국 및 경쟁국들과 관련 되는 제반 설비와 소재를 국내에서 직접 비교,검토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KOEX와 공동으로 88년 11월23일 ~26 일 SICHEM88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 회에는 국내에서 63업체, 해외에서 12개 국으로부터 58업체가 참가하여 2백62개 의 부스에서 화학산업에 필요한 각종 소 재기기 및 장치들을 전시하였다. 특히